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축사>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임하고 있습니다.

곧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편면적 구속력을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 역시 불공평한 시장 구조에서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결국 업계의 주도적 참여입니다. 최근 사모펀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안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없다면 금융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한다면 불안전판매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미봉책을 내놓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대응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지혜가 모아지고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고견을 꼼꼼히 듣고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의 최우선 가치를 금융소비자 보호로 여기고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 기반을 함께 다져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 11.

국회의원 김현정